춤웹진 The Dance Webzine

제 13 호 2010. 11. 16.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공동대표 이순열 채희완 이병옥 김태원 이종호 김채현 장광열

춤 웹진은 월 2회 정기 발행됩니다. 춤 웹진 구독을 권하시려면 춤웹진 발송처 이메일 주소로 권유 이메일 주소를 답신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춤웹진을 다른 분들에게 전송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칼럼, 에세이 등 독자 기고도 받으며, 접수된 원고는 춤웹진의 판단에 준해 선택 게재됩니다. - 편집자

춤 웹진은 PDF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춤웹진을 읽는 기본 방식은 아래위 방향의 스크롤(두루마리) 형식이며, 전자책 방식의 양면 펼쳐 읽기는 상단의 도구 메뉴 맨오른쪽 푸른색 전자책 아이콘을 눌러 클릭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춤웹진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www.koreadance.kr)에서도 구독 가능합니다. - 편집자

■ 성명서 정부는 이번 문화예술위원 인선의 실책(失策)을 인정하고 무용 부문 문화예술위원을 조속히 인선하라 한국춤비평가협회

■ 스냅 'Kore-A-Moves' 국제 포럼 및 춤 기관들

■ 한국춤비평가협회 동정(動靜)

한국춤비평가협회는 11월 5~6일 양일간 한국 춤을 유럽 무대에 집중 조명하는 프로젝트 'Kore-A-Moves'와 연계해 독일 뒤셀도르프 Tanzhaus에서 국제 포럼을 가졌다.

'Kore-A-Moves'는 컨템포러리 댄스를 중심으로 한국 안무가들의 우수 레퍼토리 9편을 한달 여 동안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11개 도시에서 23회 공연을 갖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Kore-A-moves' 국제 포럼은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의 본격 유럽 무대 진출의 출발지인 독일 탄츠하우스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한국 춤비평가들의 강의 및 발제에 이어, 그간 한국의 춤을 관측하고 한국의 춤계와 국제교류를 지속해 온 유럽 평론가와 저널리스트, 극장 및 축제, 컴퍼니 관계자, 무용가들이 함께 패널리스트로 참여해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포럼 및 춤 관련 기관 방문 스냅 사진을 우선 이번 호에 게재하고, 다음호에 포럼 소식을 보도할 예정이다.) * 춤웹진



성 명 서

정부는 이번 문화예술위원 인선의 실책(失策)을 인정하고 무용 부문 문화예술위원을 조속히 인선하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1월 4일 제3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위원 11인을 임명하였다. 이번 제3기 위원 11인 가운데 무용계 인사가 전무하여 한국춤비평가협회 전체 회원은 경악함과 동시에 이번 임명 건이 원천적으로 부당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본 협회는 정부가 문화 정책 진행에서 큰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무용 부문 문화예술위 위원을 조속히 인선(人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문화부는 지난 8월 하순에 마감한 문화예술위원 공모 및 9월 상순에 마감한 재공모를 거쳐 이번의 제3기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이들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직능 내지 전문 영역별로 문학, 연극, 양악, 국악, 미술, 문화경제학, 예술경영, 법조, 언론 등 예술계 및 예술 유관 분야의 인사들이다. 이 가운데 무용계 인사나 무용 유관 분야 인사가 전무한 것은 한국 예술계와 한국 사회에서 무용이 갖는 위상과 비중에 비추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2. 문화부가 지난 8월 하순에 문화예술위원 공모를 마감하였을 때 무용 분야에서도 응모한 인사들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문화부는 분명치 않은 이유로 재공모하여 9월 상순에 공모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무용 분야에 응모한 인사들이 문화예술위원 자격을 갖췄음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용 분야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제3기 위원을 임명한 결과에 비추어, 본 협회는 문화부가 선임하지도 않을 분야의 위원을 공모한 이유 그리고 9월 상순의 재공모 절차를 추가한 이유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3. 만에 하나 문화부 입장에서 무용 분야 위원으로 적임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무용 분야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제3기 위원을 임명할 일이 아니라 본 협회는 일단 무용 분야 위원을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재공모 과정을 밟아 추가 임명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임을 밝힌다. 따라서 문화부는 이번 문화예술위원 인선에서의 실책(失策)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관련

법규를 조정하여 적어도 무용 분야 위원 인선을 위한 재공모 과정을 밟아야 한다.

4. 이번 사태는 무용 분야에 국한된 사태가 아니라, 재공모의 이유가 불투명했던 점 등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국내 어느 예술 분야에서라도 재연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중대한 문화 정책 업무 추진 방식 및 절차에 대해 한국 예술계 및 문화 정책 당국,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안으로서 더욱 강조되어 마땅하다.

5. 무용은 글로벌 장르로서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로이 소통하는 등 국내외에서 갈수록 그 잠재력이 크게 발현되고 있다. 누구나 피부로 느끼듯이 국내에서 다양한 무용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느는 것과 동시에 한국 및 한국 예술의 국제 진출 측면에서 무용의 가치는 증폭하고 있으며, 한국 무용인들이 해외 무용 예술계와 각종 고급 경연대회에서 활약하는 사례는 물론 국제 교류와 협력 창작이 가파르게 증대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문화 정책의 중추인 문화예술위에 무용 전문 인사가 배제됨으로써 향후 문화 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런 심각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6. 문화 정책 진행에서 중대한 실책(失策)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무용의 위상을 심대하게 실추시키고 무용인의 권익마저 몰염치하게 침해한 이번 처사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본 협회는 무엇보다 무용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수의 무용인들과 더불어 향후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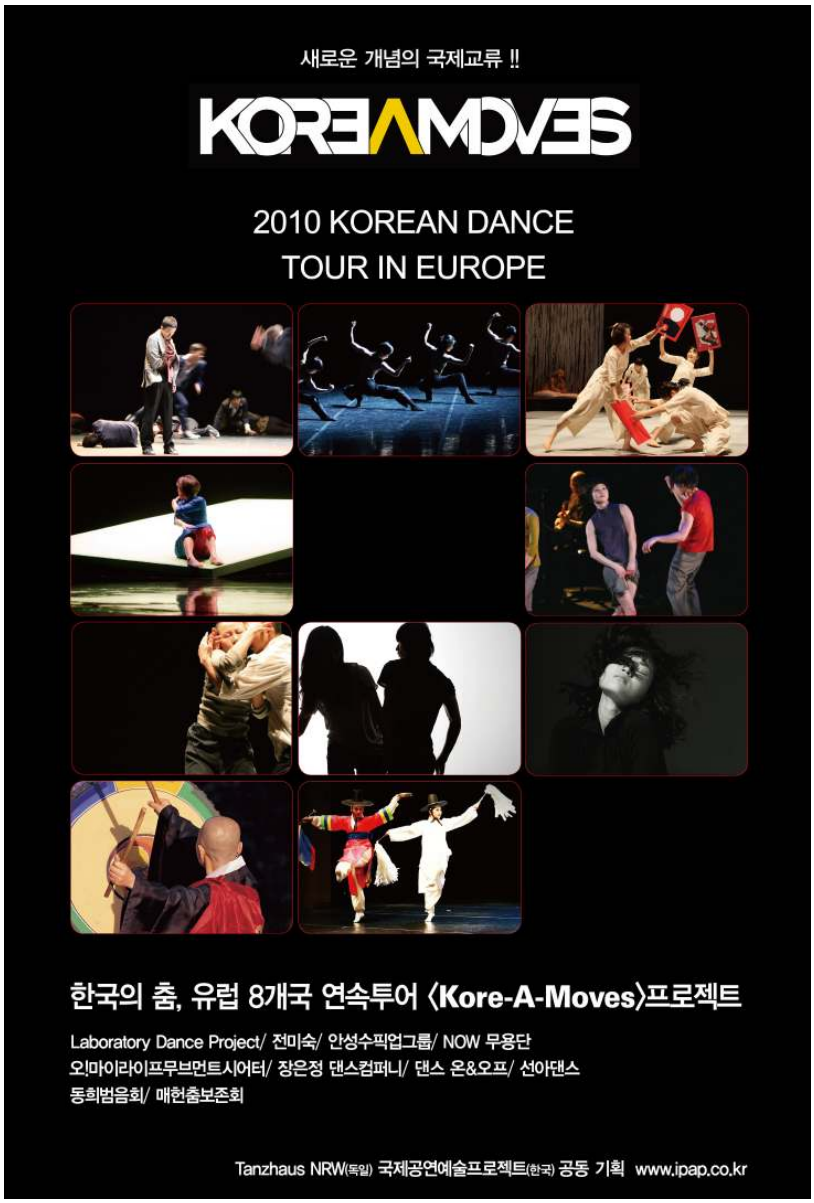
한국춤비평가협회

이순열 채희완 이병옥 김태원 이종호 김채현 장광열
이애순 이만주 김영희 이지현 서정록 (이상 12인)

광고


Kore-A moves
Korean Dance in Europe
1st-27th, November, 2010
한국 안무가들의 본격 유럽 무대 진출
11개 무용단, 유럽 8개국 13개 극장 총23회 공연
COMPANY
Laboratory Dance Project
Jeon Mi Sook Dance
NOW Dance Company
Sung Soo Ahn Pick-up Group
Jang Eun Jung Dance Company
Dance On & Off
Oh! My Life Movement Theater
Sun-A Dance
Young Sin Preservation Group
Mae Heon Chum Preservation Group
PERFORMANCES PARTNERS
Tanzhaus nrw DE
Pumpenhaus DE
Stadsschouwburg Amsterdam NL
Melkweg Theatre NL
Olhão Municipal Auditorium PT
Devir/capa Centre Black Box PT
Dansens Hus SWE
Teatro Jofre ESP
Festival Madrid en Danza ESP
The Place UK
Künstlerhaus Mousonturm DE
Nokia Concert Hall EE
Russian Drama Theatre EE
Pavilion Theatre IE
WORKSHOPS
Buddhist Ritual Dance
Korean Shaman Dance
Dance Method as Calligraphy
Contemporary Dance Method
INTERNATIONAL DANCE FORUM
COORDINATOR
Bertram Müller, Germany
Jang Kwang ryul, S.Korea
ipap
tanzhaus nrw
Korea Foundation
www.ipap.co.kr

광고



11. 5. Lecture & Korea Dance Screen and Q&A

2000년 이후 한국 창작춤의 안무 경향

강사: 이지현(무용평론가) 사회: 이종호(무용평론가)

11. 6. 포럼 한국 무용계의 현재와 국제교류 – 컨템퍼러리 댄스를 중심으로

인사말: 이순열(한국춤비평가협회 공동대표) · Bertram Mueller(Tanzhaus NRW총감독)

발제 1. Dance in Korea, Now and Tendencies / 김채현 (무용평론가)

발제 2. Korean Modern Dance & Contemporary Dance / 김태원 (무용평론가)

발제 3. Current Situation on International Exchange of Korea's Dance / 이종호 (무용평론가)

토론: B. Mueller(유럽무용센터회장) V. B. Cowenbergh(Aalto Ballett Theater Essen 예술감독)
이병옥(용인대 교수) 이만주(무용평론가) S. Till (Fabrik Potsdam 감독) 외
사회: 이지현(무용평론가) Coordinator : 장광열(무용평론가)

광고

Theater



젊은춤의 요람, 엠극장

2010 하반기 공연 안내

○ 밀물현대무용단 정기공연
11. 27~28.
12. 4~5.

○ 쿰무용단 공연
12. 11~12.

○ 베스트레파토리전
12. 16~19.

○ 판무용단 공연
12. 29.

○ 춤과의식전
9.18~19. 박건희 / 황영근 / 노해진 / 최효진
9. 25~26. 고경희 / 서지희 / 지제욱 / 성아름

○ 신진안무가전
10. 16~17. 김은희 / 백지연 / 김금화 / 이미선
10. 22~23. 김윤서 / 김태정 / 정한결 / 신혜연

○ 전문무용인의날 기념공연
10. 25.

문의 02) 578-6812 http://www.mtheater.co.kr/

The Dance Webzine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2010. 11. 16. 제 13 호

■ 스냅 'Kore-A-Moves' 국제 포럼 및 춤 기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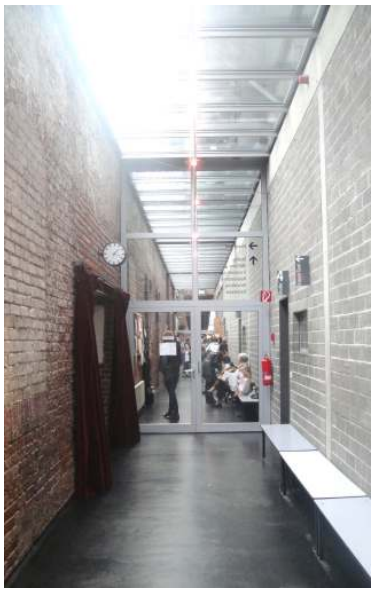
사진 제공: 김채현





'Kore-A-Moves' 국제 포럼 진행 모습, 뒤셀도르프 탄츠하우스, 2010. 11. 6.







'Kore-A-Moves' 국제 포럼이 열린 탄츠하우스(전차 차고를 재활용한 곳) 전경 (위) / 탄츠하우스 복도 (아래 왼쪽)

탄츠하우스에서의 한국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아래 오른쪽)







독일 루르 에센 탄광지역을 재활용, 설립한 안무 센터 pact 전경 (위 왼쪽)
독일 쾰른 소재 춤 박물관 앞에서의 기념 컷 (위 오른쪽, 2010. 11. 5.)
pact 내 공연장에서의 한 컷 (아래, 2010. 11. 8.)